

동북아의 공간개발계획법 기본 공조 정책을 통한 남북한 간의 친환경적인 경제 협력방안과 화해무드조성

정경채

K.C. 계획 연구소 소장

I. 서론

신은 자연을 창조했고 인간은 도시를 건설했다. 인간의 삶에 필요시 되는 주거와 일터 공간 이외에 자원과 여가 선용의 기능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은 지역마다 자연과 인간과의 독특한 문화 교류의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이점에 있어서 분명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가치관과 역사적 배경의 상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서양의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나 제도를 조사 연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어 동서양간에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지혜를 깨달아 우리에게 유용한 질 높은 삶의 공간을 함께 조성토록 하고자 함에 본 연구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II. 본론

한국은 땅덩어리, 인구수, 교육수준, 경제규모, 군사안보력, 기술 수준, 민주화 정도에서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 논문이 제시한 개발 모형이 평가한 수준은 이미 제3 단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중견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개발단계 수준을 제시된 개발모형을 통해 선진자본민주강국으로 포괄시킬 수 있는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동북아시

아에서의 지속적인 번영, 평화와 공조체제를 위해 학문적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국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동북아의 개발 모형 형성의 모델 대상을 한국을 대상으로 하였던 즉 그 근거는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63년 이후 세계화 과정으로 시작하여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웃 국가와 공간개발의 본보기로서 국가적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웃 국가들과의 교통 무역학적인 접근이 용이함으로 동북아의 중추국가로서 역할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점도 있다. 도표에 나타내는 계획은 동북아의 공간 개발모형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 내용으로 한국을 기준으로 창조되었으나 개발모형은 크게 장소성, 시간성과 기능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기능성은 왼쪽 난에 표시된 내용들이고 시간성은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 지역에 첨단 산업으로 중화학 공업이 도입되었을 때 관련 2차 산업도 지역 사회에 활착화 되어 지역의 사회와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때까지의 시간적 소요 기간을 말하며 계획목적상 1단계를 30년으로 하되 계획내용상 확고히 규정짓지 않고 NK¹⁾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현재 고도화 선진 산업국가 수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반해 경제 활동인구인 청소년층의 고용 창출 효과는

1) Joerg Bickenba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Thirty years ago, North Rhine-Westphalia with its Ruhr area was the symbol of coal and steel, heavy industry and mechanical engineering. But now, it has become a symb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There are not many regions in the world which, within a period of 20~30 years, have undergone a structural changes which has been similarly radical and dramatic. To cope with such structural changes,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highly precise and valid picture of existing structures and, in particular, of emerging new structures. Federal Statistical Office, forum of Federal Statistics, Vol. 37/2000, p. 49.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러한 인구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미래한국의 경제는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남북의 분열된 이념적 대결의 승패에 달려 있다 할 수 없고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 낼 수 있느냐하는 포괄적인 인식의 전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경제 수준에 비하여 인구구성비율이 선진 국가 모형에 도달되고 있고 앞으로 50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고령화 된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감소하고 있는 경제 활동 계층의 청소년층에 대한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어 경제 성장에 있어 가장 높고 병들어 가는 사회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 논문은 장기적인 사회경제여론 조성의 핵심이 될 시민정치,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에 의한 조정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모형을 제시하여 보았고 북한의 전략 지리적 위치, 풍부한 저임금 수준의 고급인력을 이용해 남북 간의 경제 및 도시지역공유 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고수하는데 역점 두었다. 한국은 본 연구 논문에서 평가한 제 3개발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국토 균형 개발 문제, 남북경협문제, 사회 고령화 문제, 도시 내에 건강한 여가 선풍기능 강화 문제, 수도권 편중 개발에 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명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인구 구성비율은 이웃 국가인 일본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사전적 준비 없는 단계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경제성장의 퇴보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조경가들은 도시 내에서의 노인들을 위한 각종 여가 선풍기능, 노인 복지사 직종의 새로운 출현, 실버타운 등 고령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움직임을 읽을 수 있어 앞으로 이들 인구 계층을 환경 예술학적으로 지원할 수 실무적 이론적 뒷받침이 될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케인즈의 신 고전 경제 이론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자동 조정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특수 분야의 사회적 수요도 발생시키고 경제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간섭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올바른 국토 경영은 공정한 경쟁 속에 시장경제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1, 2 단계에서는 거점도시를 중심으

로 한 도시경제의 성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하며 제 3단계에서는 녹지의 기능을 갖춘 콤팩트 시티의 조성도 주어진 경제 수준과 국토 환경의 여건으로 보아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경 디자인의 본질적 문제를 다룰 조경가의 역할 또한 매우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은 현재 환경문제, 황사, 삼림 황폐화와 사막화 문제, 인구 문제, 자원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한 중국 대륙의 심장부에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양쯔 강과 황허 강은 매년 홍수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강 주변의 공장지대로부터의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공장오폐수와 생활폐수 그리고 토양 유실로 인한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또한 중금속에 의한 토양의 오염 정도도 나빠 이곳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어서 인근 지역은 물론 주변국가에게도 환경폐해의 영향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자원 보존과 환경재해 대책 조치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경제 개혁 조치는 지속적 개발이라는 관념을 국가 및 지역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없게 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은 폐쇄적 국가 운영에서 벗어지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에 대한 국내의 인식의 전환과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꾸준한 조치가 계속될 때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현재 개성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물꼬를 트고 있으나 아직 세계화 과정 속(Globalisation)에 초 지역 간의 생산자원이나 물자를 유통시키어줄 교통체제도 연결하지 못한 상태이고 자유 시장경제 성장을 통한 대외적으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본 연구 논문에서는 개발 모형 제 1단계 생성기에도 못 미친 상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반면 환경문제, 지역 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원만한 통제로 70년대 말 경제 개혁조치나 WTO 등의 가입 등 세계화에 대한 문호개방 이후 최근 10여간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제 2단계의 성장기에 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공간 개발 정책이 있어 공공 부문의 역할, 국가적 협력과 지속적 개발의 과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여기서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국방, 안보, 교육, 국민의 재산권 보호, 환경 문제에 국

표 1.

개발단계 분야별 기능	제1단계 생성기	제2단계 성장기	제3단계 성숙기	제 4단계 침체기
개발목표	고도의 경제급성장	고도의 경제 성장과 대도시로의 밀집현상	균형된 국토 공간개발	선진 복지 국가의 실현과 건강한 삶의 공간 조성
인구 성장	급속도의 고도 성장	고도성장	근소한 증가내지는 인구 정체 현상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청소년층의 인구 감소현상
개발주체	중앙정부	중앙통제부의 민주적 행정 기관	관민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쉽 조성	사기업의 공공성 확립과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쉽 조성
개발내용과 이론적 배경	양적인 성장 도시 경제성장거점이론	지속적인 성장 도시경제 성장거점이론	양적인 질적인 균형된 성장. 도시중심지이론과 네트워크 개념	질적인 성장. 도시중심지이론과 네트워크 개념
국토 개발 형성	서울과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대도시의 양극화와 세계화	서울과 영남지방의 집중적인 지역화	거점도시의 다극화와 균형된 지역경제 활성화	존속하는 공간 구조를 공고히 함
정부 행정	권위 주위적 중앙정부의 통제	지방 분권화 된 중앙정부 통제기능	책임 내각제	입법부의 강화와 책임 내각제

한될 수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사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로서 지속적인 시장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국가의 간섭과 제재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지방자치권의 자율화에 맡길 수 없는 범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자연 재해 및 경제적 손실문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계획과 통제는 불가피한 실정일 것이다. 제 4단계에서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도시의 확산과 토착화를 유도해야 하며 특히 중소도시의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유출되어 가고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의 통합연계 기능을 강화해 인력, 물자, 서비스 기능의 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도시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신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일터와 주거기능을 초월하여 도시 내에 생태기능을 갖추어 도시의 자족중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 재차 선진 문화권 개발의 도약을 위해 전체 인구의 약 46%를 수용하고 있으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의 발판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경기도권의 공간 구조 개편과 일과 주거 환경 외에 소득 증대에 따른 여가 선행기능의 중요성과 함께 도시공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시 공간에 대한 재평가의 과제도 안고 있다. 남북간 대립보다는 동북아 내에서의 여론과

대화 체제를 구축해 각 지역의 사회간접 자본, 경제 성장단계와 민주화 정도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경제변영, 안녕과 성장차원에서의 선진 복지국가 수준의 경제 대국을 건설하는 방법이 보다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논문은 제시된 개발 모형 내에서 동북아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공유체제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조경 전공분야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경학에 대한 시사성이 있다고 본다. 도시 네트워크 이론은 종래의 유물론학적인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공간개발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개발축 이론(Development Axis Theory)을 한 단계 앞선 이론으로서 도시 중심지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 이론이라고 판단된다. 종래의 공간이론에는 주거와 일터 공간이 도시공간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개발 모형에 따르면 도시 중심지이론과 도시 네트워크 이론이 도시에 새로운 여가 선행 공간기능과 녹지 공간기능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독일)의 공간 건설법(Raumordnungsgesetz)에는 도시 네트워크 이론은 이미 도입되었으나 아직 법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인지라 앞으로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도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에서 이 연구논문을 쓴 발표자로서 우리 조경가들에게 앞으로 있을 삶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데 적극 호응하여 이 도시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고 새로이 창조하는 사회적 수요에 적극 동참해 주고 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해 보도록 제안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III. 결론

동북아시아에서 각 국가별 이상추구, 문화역사적 배경과 경제 성장 수준의 차이점에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성장과 질서 있는 도시화, 삶의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공정한 시장경제와 사회적 정의에 입각한 서로간의 공통적 대의 목표를 찾아가며 각 국가별 처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특히 도시 공간의 구조적 모순성과 결함을 찾아가고 여론과정을 형성하여 본 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공통된 목표시스템을 단계적, 사전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간다면 커다란 분쟁이나 비용 산출, 사고 없이도 지속적인 개발 방법에 의한 동북아의 평화 존속, 경제적 번영과 삶의 공간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자연과의 문화 교류의 공통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 간의 여론수렴과정과 문화공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 간에 경제 성장하려는 경쟁 속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메가시티 대도시들 간의 경쟁 열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환경공간 속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환경 자원의 지속적인 보존성, 미적 감각성, 문화적인 공공성을 초국가적이면서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가의 전문가적 자질이 요망되는 바이다.

인용문헌

1. Bickenbach, Joerg. (2000). Regional and Structural Policy Requirements to be met by Official Statistics; Conference on Policies and Statistics in the European Union-Challenges and Responses-Contribution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atistics Conference in Berlin From 18 to 20 October 1999. Federal statistics Office, Forum of Federal Statistics, Vol. 37/2000, pp. 49-53.
2. Chung, Kyung-Chae(1994) The Integrated Regional Planning of the Future: A Case Study of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age Publications, Vol. 40 No. 4, pp31-35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versity of Oldenburg, Germany, p.271.
3. Herr Hansjoerg(2002) Tastendens Suchen Chinas erfolgreiches Reformprozess. IPG 3/2002.
4. Kuehn Manfred(1996) Moderation von Nutzungskonflikten-eine Aufgabe fuer die oekologisch orientierte regionalplanung.